

보도시점 2026. 7. 23.(목) 16:00 배포 2026. 7. 23.(목) 10:00

‘27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및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마련

국무총리 주재,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정부는 7월 23일(목)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58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7.23.(목) 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30인
- 회의안건
 - ① '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안)
 - ②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 ③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
 - ④ '25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먼저, 위원회에서는 올해 대비 8,712억원 증가한 6조 3,084억원 규모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을 논의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날 의결된 사업계획은 앞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또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2월)」에 제시된 핵심 과제로서 보건·문화 전략에 이은 인공지능(AI) 분야 개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협력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밖에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내역을 의결하고, ’25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았다.

□ 이번 심의·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정부는 '27년 ODA 요구액 규모를 총 6조 3,084억원으로 편성한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 이는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저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하여 '26년 대비 시행기관은 4곳, 사업 수는 536개 사업이 감소한 것으로 33개 기관, 1,22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27년에는 지난 2월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을 기반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에 기여하면서 보건·문화·AI 등 전략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첫째,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댐 건설과 하천정비 등 홍수관리 인프라를 지원하여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재난안전 정책과 기술을 협력국에 제공하여 재해위험 대응역량을 높이고, 아동, 빈곤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 둘째, 호혜적 상생 확대를 위해 제4기 중점협력국('26~'30) 대상 국가 협력전략(CPS) 제·개정시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간 개발협력 MOU('26.6월) 등 정상외교의 성과가 개발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셋째 혁신적 개발 이행을 위해 협력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공동 기획하는 '제안형 OD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문화·AI 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강점 분야를 활용하여 협력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 또한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고, 공적 재원을 마중물로 협력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 민간의 혁신기술, 기업 비즈니스 모델, 글로벌 민간자본을 ODA와 결합해 개발효과를 높이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①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②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③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으로 구성('26년 475.8억원)

- 넷째, 통합적 체계 구축을 위해 다지역 유사사업 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과 관행적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평가전문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AI 기반 기술을 사업관리에 접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 다섯째,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모든 시행기관에 도입하여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자협력 추진전략('27~'30)을 수립하여 국제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아울러 개발협력 분야의 직무 특성과 인력수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앞으로 정부는 4차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전략에 따라 신규사업 내 보건, 문화, AI 활용 ODA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유·무상 연계 패키지사업, AI가 내재된 인프라 사업, 개발금융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중점협력국 내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ODA 자원을 집중투입함으로써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2.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 정부는 우리 AI 역량을 바탕으로 AI 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이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2월)」에서 AI·문화를 새로운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먼저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협력국의 AI 도입·확산 준비 수준과 수요에 따라 AI 기반 구축부터 현지형 AI 모델 개발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27년도 개소 예정인 글로벌 AI 허브를 거점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AI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의 5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으로 협력국의 법·제도 정비 등 AI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AI Lab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둘째, AI 융합 프로젝트 추진으로 재난 대응, 자원 관리, 식량 분야 등 글로벌 위기 대응에 AI 솔루션을 지원한다. 우리의 중점분야인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교통 등에 AI를 접목하며 금융, 산업 등 신규분야에도 AI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 셋째, 협력국 특화형 AI 사업으로 현지 언어·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셋 구축부터 문제해결에 특화된 AI모델 개발까지 전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형 인프라에 AI 솔루션을 접목한 AI 내재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 넷째, AI를 활용한 ODA 파트너십 강화로 정상외교, 국제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AI 의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AI 허브를 거점으로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을 발굴한다.

- 다섯째, AI를 기반으로 ODA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ODA 홈페이지에 AI 검색을 도입하여 정보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단계별 AI 활용도 확대한다.
- 앞으로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맞춤형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민간 혁신역량 활용을 통해 협력국과 신뢰 기반의 AI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2분기)

- 정부는 '26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로 인한 ODA 사업 변경·신설 내역을 보고하였다.
 - '26년 2분기 동안 외교부·재경부 등 4개 기관에서 총 22건의 변경이 승인 되었고, 그 중 협력국의 사정변경, 정세변화 및 요청 등에 따른 철회 승인이 총 1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 사업 철회(11건), 사업기간 변경(9건), 총사업비 변경(1건), 기타 사업 핵심 요소의 변경(1건)
- 시행기관·주관기관의 사업 기획·운영을 강화하여 사업 변경·신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4. '25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외교부는 '25년 74개 재외공관이 84개국 340개 무상원조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 * 전년 대비 모니터링 재외공관 수(+10개), 대상국(+13개) 및 대상사업 수(+38건) 증가
- 모니터링 결과, 후속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시행기관들은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현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외교부는 무상원조 사업 점검의 전문성 및 체계성 강화를 위해 '25년 최초로 '민관합동 ODA 사업 현지 이행점검'을 도입하여 주관기관-재외공관-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3개 지역(아프리카.아세안.중남미), 8개국, 24개 사업

□ 앞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 및 민관합동 점검 결과를 사업 집행관리, 심사·평가에 환류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재외공관의 ODA 사업 관리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주요 특징
- 붙임2. '27년 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안)
- 붙임3.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 붙임4.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
- 붙임5. '25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옥선경 (044-200-2148)
		담당자	사무관	김찬일 (044-200-2150)
담당 부서 <안건 1>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옥선경 (044-200-2148)
		담당자	사무관	곽현진 (044-200-2161)
담당 부서 <안건 2>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윤정 (044-200-2157)
		담당자	사무관	송동훈 (044-200-2158)
담당 부서 <안건 3>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사업연계조정과	책임자	과 장	한레지나 (044-200-2164)
		담당자	사무관	하명균 (044-200-2166)
담당 부서 <안건 4>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지수 (02-2100-8059)
		담당자	외무사무관	천성희 (02-2100-8279)



기술을 활용하여 AI 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

- ✓ 협력국 법·제도 정비 등 AI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원
- ✓ 협력국 여건을 고려한 인프라 및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 석·박사 학위 연계 인턴십, AI Lab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AI 융합 프로젝트 추진

- ✓ 재난(예·경보), 수자원(누수), 식량(병충해) 등 글로벌 위기에 AI 지원
- ✓ 교육(양방향 교육), 보건(비대면 진료), 교통(지능형 교통) 중점 분야에 AI 융합
- ✓ 금융(대안신용평가), 산업(피지컬 AI 활용) 신규 분야에 AI 활용 확대



협력국 특화형 AI 사업 추진

- ✓ 협력국 특화 AI 모델 구축 및 맞춤형 AI 하드웨어 보급 지원
- ✓ 대형 인프라에 AI 솔루션을 접목한 AI 패키지 사업 추진



AI 활용 ODA 파트너십 강화

- ✓ 글로벌 AI 허브를 거점으로 UN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발굴
- ✓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CTS, IBS)을 통해 혁신사업 발굴·추진



AI 기반 ODA 투명성·효율성 강화

- ✓ ODA KOREA에 AI 검색, 챗봇 도입으로 정보접근성 제고
- ✓ 사업기획 → 집행 → 평가 전 주기에 AI 적용



- ❖ 「제4차 기본계획('26~'30)」을 기반으로 글로벌 위기대응을 지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정비를 통해 중점협력국 및 전략분야(보건·AI 등)를 중점 지원
- ❖ 사업실명제·기록이력제 및 평가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투명성·전문성 강화

1 '27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안)

- (총괄) '27년 ODA 요구액 규모는 6조 3,084억원, 총 33개 기관, 1,227개 사업
 - ※ '26년 대비 8,712억원 증가, 4개 기관, 536개 사업 감소('26년 5조 4,372억원, 37개 기관, 1,763개)
- (유형) △양자·다자 비율 81:19(양자 5.1조원, 다자 1.2조원)
 - △유상·무상비율 43:57(유상 2.2조원, 무상 2.9조원)
- (지역) 아시아(29.4%) > 아프리카(24.6%) > 중동·CIS(9.3%) > 중남미(6.8%) 順
 - ※ '26년 대비 비중은 중동·CIS(7.5→9.3%) 증가, 아시아(30.4→29.4%), 중남미(7.8→6.8%) 등 감소
- (분야) 교통(21.9%) > 보건(10.8%) > 인도적지원(9.7%) > 교육(8.1%) 順, 전년대비 교통 분야 비중 감소(28.2→21.9%) 및 보건 분야 증가(7.9→10.8%)
 - ※ '26년 주요 분야 비중 : 교통(28.2%) > 인도적지원(9.5%) > 교육(8.1%) > 보건(7.9%) 順

2 '27년 국제개발협력 중점 추진방향

【 포용적 가치 실현 】

- 가뭄·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인프라 정비*(댐 건설 및 수도시설·하천 정비 등) 지원과 함께 글로벌 국제기구 기여** 지속 추진
 - * ▲필리핀 재해경감을 위한 메트로 마닐라 통합 홍수관리 체계 구축사업('21-'27년, 28.7억원)
 - ▲에티오피아 GCF(AE) 도시기후회복력 구축 사업('27-'32년, 21.6억원)
 - ** ▲GCF('24-'27년, 총 3억불), GGGI('27-'30년, 총 390억원), 손실와 피해 대응기금('25~'27년, 107억원)
 - ▲'26-'30년 GAM에 총 5천만불 기여 약정 ▲'26-'28년 GF에 총 1억불 기여 약정 및 이사회 진출
- 재난안전 정책·기술을 제공*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아동·빈곤층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접근성 강화** 지원
 - * ▲베트남 중부(응에안 권역) 재난관리 역량강화 사업('26-'29년, 22.2억원)
 - ▲이집트 'Smart Nile' 구축을 위한 AI·드론·디지털트윈 기반 환경재난 관리 인재양성('27-'31년, 3.5억원)
 - ** ▲에콰도르 생애 1,000일 이내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 예방 사업('26-'31년, 32.5억원)
 -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 교육기관(DTI) 건립사업('27~'32, 29.9억원)

【 호혜적 상생 확대 】

-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상호 호혜성을 고려하고 협력국의 혁신기술 분야 개발수요 확대에 따른 사업* 발굴·지원
 - * ▲한-타지키스탄 IT Park 조성을 통한 혁신적 IT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27-'32년, 0.5억원)
 - ▲케냐 콘자 스마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조성사업('23-'32년, 187억원)
- 제4기 중점협력국('26.5월)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제·개정('27.上)시 대외정책을 반영하여 정책 일관성 확보 및 시너지효과 제고
- 韓-伊 개발협력 MOU('26.6월) 등 정상외교 공약 및 성과 이행 지원

【 혁신적 개발 이행 】

- 수요기반 공동기획형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제안형 ODA' 본격 추진
- 새로운 강점 분야인 「문화분야 ODA 추진전략('26.5월)」 및 「AI 활용 ODA 추진전략('26.7월)」에 따른 사업* 발굴·추진
 - * ▲(문화) K-헤리티지 기반 캄보디아 앙코르툼 승리의문 복원 및 지역문화 활용사업('27-'31, 17.7억원)
 - ▲(AI 활용) 인도네시아 디지털 정부 거버넌스 및 AI 기술도입 강화사업('27-'30, 8.7억원) 등
- 민간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CTS·IBS·IPS*) 확대 및 공적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개발금융 추진
 - * ▲(CTS) '26년 148억원→'27년 156억원 ▲(IBS) '26년 280억원→'26년 322억원 ▲(IPS) '26년 49억원→'27년 68억원

【 통합적 체계 구축 】

- 다지역 유사사업 평가를 통해 저성과·관행적 사업의 과감한 개선·정비 및 적합한 모델 발굴·확산
- 평가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관리와 OECD 통계 보고에 AI기반 기술을 접목*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 * 사업별 정보를 판단하여 CRS(공여국 보고 체계) 코드 분류 자동화 추진

【 이행 기반 】

- 사업실명제·기록이력제 쏠시행기관 도입을 통해 책무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자협력 추진전략('27-'30)」을 수립('27.上)하여 파트너십 강화
- 국제개발협력 분야 직무 특성 및 인력수급 현황을 분석*하여 전문인력 양성·활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ODA 관련 데이터의 연구 활용** 확대
 - *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26.12월)
 - ** ODA 통합 홈페이지(ODA KOREA)를 통해 ODA 사업 산출물 공개 등 데이터 접근성 개선

3 ODA 사업심사 결과 및 향후 계획

【 ODA 사업심사 결과 】

- 분야별 주관기관은 ODA 사업의 신뢰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27년 ODA 사업 정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26.3) 하고 사업정비 수행
 - * "우리 대외원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25.12월, 대통령님 외교부 업무보고)
- 주관기관은 집행부진 및 저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하여 전년 대비 시행기관 4곳, 사업 536건(30.4%)을 감축
 - * ('26년) 37개 기관 1,763개 사업 5.4조원 → ('27년) 33개 기관 1,227개 사업 6.3조원
- 다만 보건·문화·AI 사업 발굴 및 대형화 등 4차 기본계획의 전략을 적극 반영하고, 투명성·효과성 확보를 위한 심사 절차 개선 지속 추진

【 사업발굴 방향 】

- 4차 기본계획과 분야별 전략*에 따라 신규사업 내 보건·문화 및 AI 활용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 사업지표(Marker)로 사업규모 관리
 - * ▲보건분야 개발협력 전략('26.5) ▲문화분야 개발협력 전략('26.5) ▲AI활용 개발협력 전략('26.7)
- 유무상 연계 패키지사업, AI 내재형 인프라사업, 개발금융* 활성화 등을 통한 대규모 사업 적극 발굴 지원
 - * ①공적금융기관이 ②민간재원을 동원하여 ③협력국 민간 개발프로젝트를 지원(지분투자, 장기대출, 보증 등을 통해 리스크 분담)
- 다자협력 추진전략('27.上)에 따라 다자협력을 확대하고, 양자사업은 제4기 중점협력국*('26.5) 대상 전략적 자원배분 추진
 - * 중점협력국 대상 지원비율 ('25) 83.5% → ('26) 71% → ('27) 75.0%

【 제도 개선 】

- 주관기관의 사업 심사지침에 심사기준 등을 명시하고, 최종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는 등 사업 심사 절차 개선
- 시행기관 대상 사전 컨설팅* 제공, 통폐합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및 단계적인 정비를 통한 사업의 내실화 지원
 - * ▲신규사업 사전 스크리닝 ▲사업설계 컨설팅 ▲심사종료 후 부적정 사유 환류
- 사업 철회·변경 최소화를 위한 주관기관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총액단위사업*, 다자 ODA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등을 위원회 보고
 - * 해외긴급구호 등 시행계획에서 단일사업으로 승인 후 운영시 여러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I. 추진배경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가 간 AI 격차(AI divide) 확대

- 인공지능(AI)은 기후·보건·식량 위기 대응, 경제·사회적 발전 등 협력국이 당면한 문제의 혁신적 해결 방안으로 부상
 - * OECD AI 원칙에 따르면 AI는 포용적 사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필요(24)
- 그러나, 선진국-협력국 간 AI 기반 및 활용 수준의 격차가 크고 AI 데이터·인프라가 양극화됨에 따라 향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
 - * IMF의 국가별 AI 준비지수(24) : (선진국) 0.68, (신흥국) 0.46, (저소득국) 0.32
 - ** AI 활용 비율은 고소득국은 국민의 2/3, 저소득국은 5%로 포용적 기반 없이는 국가 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25.12월, UNDP "The Next Great Divergence")

◇ AI 격차 완화 및 포용적 AI 실현을 위한 AI 활용 ODA 추진 필요

- 한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인프라 및 데이터 확충, 독자 AI 모델 개발, 인재 양성 등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 AI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기술 발전을 넘어 모두가 AI를 활용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기본사회' 실현
- 국제사회 차원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협력국의 AI 접근성을 확대하여 AI 격차를 완화하는 ODA 추진 필요
 - 협력국이 AI 혁명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약적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AI 산업 성장 지원
 - *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 제시(대통령, '26.6월, G7 정상회의 확대회담)
 - 또한, 협력국과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우리 AI 기술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는 '상호호혜적 ODA' 추진

표.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국제사회는 포용성 측면에서 협력국의 AI 생태계 구축 지원

- **(미국)** 국무부와 주요 AI 기업*은 협력국의 AI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는 글로벌 AI 포용성 파트너십 출범('24.9월, 총 1억불 이상)
 - * 아마존, OpenAI, 엔트로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IBM
- **(프랑스)** Africa Forward Summit에서 아프리카를 상호호혜적 투자 파트너로 규정하고 공동 AI 생태계 구축 추진 발표('26.5월)
 - * ▲아프리카 현지 AI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현지 언어 기반 소버린 AI 개발,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에서 구동 가능한 초소형 기계학습(TinyML) 기술 확산
- **(기타)** 영국, 캐나다, 스웨덴은 협력국의 AI 개발·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AI4D(AI for Development) 프로그램 공동 추진('25~)
 - * ▲아프리카 내 AI 연구 네트워크 구축, ▲현지 연구기관과 솔루션 공동 개발

◇ 한국의 AI 활용 ODA는 증가 추세이나 단기·소규모 사업 중심

- **(규모)** '26년 AI 활용 ODA 사업은 총 65개 사업(약 533억원)으로 개발협력 분야(보건·의료, 교육, 행정 등)에서 AI 활용도 증가 추세

【 '26년 AI 활용 ODA 사업 현황 】

사업 부처	외교부*	과기부	재경부	국토부	기타**	합계
사업 수(건)	15	7	6	8	29	65
사업 규모(억원)	168	30	17	106	212	533

* 외교부 CTS 사업, IBS 사업, 민관협력사업은 각각 23건, 8건, 4건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행안부(6건, 29억원), 교육부(18건, 112억원), 중기부(3건, 69억원) 등

- **(유형)** 개발컨설팅 등 예비·자문 단계의 소규모 사업*이 다수이며 중·장기적 역량 강화·인프라 구축보다는 2년 이내 단기 사업 위주
 - * '26년 확정액 기준 ODA 규모가 5억원 이내인 사업이 37건으로 56.9% 차지

◇ 국내 AI 활용 ODA의 추진체계 미흡 및 전략성 부족

- **(추진체계 미흡)** 그동안 중점분야로 추진한 과학기술·ICT와 달리 AI 활용 ODA는 개념정의, 사업 범위 및 성과관리 체계가 불명확
 - 신규사업 기획시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AI 활용사업에 대한 통계관리 기준, 구체적인 성과지표도 부재
- *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CRS(공여국 보고 체계)에도 'AI ODA'에 대한 별도 분류 부재
- **(전략성 부족)** AI 기술을 일부 도입·활용한 중·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으로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부족
 - 협력국 AI 준비 수준(인프라·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진단 없는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종료 후 지속성과 확산 가능성도 제한적

◇ AI 접근성을 확대하고 쏠 분야에 AI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략 필요

- AI 기술을 개발협력 쏠 분야에 접목하여 범분야 혁신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협력 분야(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등)에 AI 추가
 - ODA 종합시행계획에 AI를 별도 사업지표(Marker)로 규모 관리
- 협력국 수요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인프라 구축이 아닌 '현지 맞춤형 인프라', '협력국 문제해결형 AI 모델' 지원
 - 협력국의 AI·데이터 주권 확립을 원칙으로 협력국의 자생적 AI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지원
- 우리의 AI 정책 경험*의 적극적 활용 및 글로벌 AI ODA 리더십 제고를 통한 대내외 신뢰 기반의 협력 파트너십 구현

* 세계 최초로 AI 산업 육성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시행(26),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26) 등

☞ 우리의 AI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AI 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AI 활용 ODA 전략 수립

Ⅲ. AI 활용 ODA 추진방향

비전

AI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

기본
방향

-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포용적 ODA
- 협력국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ODA
- 국제사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상생형 ODA

중
점
과
제

①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

① AI 활용 기반 마련

② AI 전문인력 및 기업 양성 지원

② AI 융합프로젝트
추진

③ 글로벌 위기 대응 AI 솔루션 지원

④ 중점협력 분야 AI 접목

⑤ 신규분야 AI 활용 확대

③ 협력국 특화형
AI 사업 추진

⑥ 협력국 맞춤형 AI 확산

⑦ AI-Embedded 인프라 추진

④ AI 활용 ODA
파트너십 강화

⑧ 글로벌 협력 강화

⑨ 민관협력 확대

⑤ AI 기반 ODA
투명성·효율성 강화

⑩ ODA 투명성·접근성 강화

⑪ AI 기반 사업관리 제고

⑫ 사업단계별 AI 활용 확대

이행
방안

-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맞춤형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 민간 혁신역량 활용 확대

IV. 기본 방향 및 5대 중점과제

1 기본 방향

◇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포용적 ODA

-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국의 AI 도입·활용·확산 생태계 조성 지원
- AI 활용에 있어 국가 간 격차뿐만 아니라 협력국 내 지역·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농촌,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

◇ 협력국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ODA

- 국가별 AI 도입·확산 준비 수준*에 따라 법·제도 마련, 교육 등 AI 기반 구축부터 현지형 AI 모델 개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 * KOICA는 협력국의 AI 수용역량 진단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인적 자본, 제도적 기반 등 다각적 요소를 고려한 국가 단위 AI 수준 진단 도구(KAIRAT) 개발('25~)
- 협력국 수요에 기반한 사업발굴, 현지 언어 및 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ODA 사업 추진을 통해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협력국 발전 수준별 지원목표(안) 】

발전 수준	저개발 국가	중진 협력국
지원방향	· AI 법·제도 컨설팅 · 기초 인프라 구축 · AI 교육을 통한 리터러시 지원	· AI 인프라 구축 · AI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구축 및 AI 모델 개발

◇ 국제사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상생형 ODA

- 글로벌 AI 허브('27년 개소 예정)를 거점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강점 분야의 AI 활용 확대 방안 모색
- CTS, IBS 등 혁신적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 문제해결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여 확대 지원

*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혁신기업 등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대·중·견·중소기업

2 5대 중점과제 추진방안

과제 1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

□ AI 활용 기반 마련

- **(법·제도 마련)** 협력국 내 AI 관련 법·제도 정비,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등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인프라 확충)** 협력국의 전력·통신 등 인프라 여건과 운영역량을 고려하여 저비용·저전력으로 운영 가능한 소규모 인프라 구축
 - * 예) ①저전력으로 연산을 수행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 ②데이터센터와의 통신 연결 없이 자체적 연산을 수행 가능한 온디바이스 기반 AI 인프라(예: 이동식 버스형 AI Lab), ③슈퍼컴퓨터 퇴역자원 일부를 활용한 소규모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 **(데이터 구축)** 협력국의 비정형 데이터(현지어, 영상 등)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수집·가공하여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지원
 - 현지 대학, 연구소 대상으로 데이터 라벨링 등 교육을 지원하고 구축한 데이터셋을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 * 예) AI 학습용 카자흐어 말뭉치 데이터 공동구축 사업('24-'25)

□ AI 전문인력 및 기업 양성 지원

- **(인재 양성)** 국내 학위과정, 단기 초청연수, 현지 역량강화 교육 등과 연계하여 협력국 정책·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육성
 - 석·박사 학위 연계 인턴십*, K-AI Lab 또는 디지털 드림스페이스** 등을 활용한 AI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AI 활용역량 강화
 - * 예) 전문인재양성 프로그램 내 AI 전공 석사학위 및 우리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 ** K-AI Lab : AI 인력양성, 산업적용 지원, 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AI 협력 센터
디지털 드림스페이스 : ICT 중심의 기존 정보접근센터를 AI 교육 센터로 개편
- **(스타트업 지원)** 현지 AI 스타트업 발굴, 사업화·투자 지원 등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적 AI 창업 생태계 조성
 - 한국의 AI 창업 지원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창업·혁신 환경 구축

과제 2 AI 융합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위기 대응 AI 솔루션 지원

- **(재난 대응)**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난관리 AI를 구축을 통한 재난 예측 정확성 향상 및 재난피해 경감 지원
 - 조기경보, 재난방송, 교통통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응 역량 강화
- **(자원 관리)** 수자원 댐, 정수장, 상·하수도 등 물관리 인프라에 AI 접목을 통한 협력국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안전성 강화
 - * 예) AI 정수장 : AI 분석을 통한 약품처리 최적화, 수돗물 품질 이상징후 사전포착
댐 안전진단 : AI 기반 댐 손상유형·규모 자동 진단 및 보수보강 대책 제시
수자원 관리 : 상수관망 AI 수압 모니터링으로 누수가능성 있는 지점 예측
 - 자원순환 AI 스마트 재활용 자동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국의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 예) 재활용 폐기물 선별을 수작업에서 AI 로봇으로 전환하여 매립·소각 저감
- **(식량)** AI 기반 교육·정보제공, 데이터(농지, 병해충 등) 분석·예측을 통한 맞춤형 농정서비스 제공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 농업 : 토양·기후·병해충 데이터 분석 및 수확량 예측, 스마트농업 기술 전수
- ✓ 수산업 : AI 기반 수온·수질·사료량 자동제어 스마트 양식 시스템 보급 지원
- ✓ 축산업 : 개체수·환경 데이터 분석, 질병 및 방역 관리, 스마트 모델팜 보급

□ 중점협력 분야 AI 접목 (우리 강점 분야 + AI)

- **(교육)** AI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보급, 스마트클래스 등 학습자 맞춤형 양방향 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
 -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혼합 AI 교육 플랫폼을 지원하여 격오지, 소외계층의 AI 접근성 확대
 - * 인도 스마트클래스 디지털솔루션을 활용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24-'29)

- **(보건·의료)** 비대면 진료, 진단 보조, 만성질환 관리 등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
 - 감염병 감시·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을 통해 R&D 효과성 제고
 - * 예) 자궁경부암 진단 AI를 활용한 베트남 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25-'27)
- **(공공행정)** 공공데이터 관리, AI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문서처리 자동화, 챗봇 등 민원 응대 개선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
 - 협력국에 AI를 접목한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전수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컨설팅도 제공
 - * 예) 콜롬비아 디지털정부 AI 적용 및 공공데이터 활용('26-'28)
- **(에너지)** 전력 인프라 취약 지역에 분산형 전력망,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력 보급 및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지원
 - 대규모 전력 인프라(발전소, 송배전 등) 구축시 AI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수급 예측, 에너지 저장 최적화 등 운영 효율성 제고
- **(교통)** 스마트 신호제어, 대중교통 최적화, 사고 위험구간 관리 등 지능형교통체계 지원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안전 확보
 - e-모빌리티(전기차·버스·트럭 등)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대응, 충전 시간 최소화를 위해 AI 기반 고효율 충전 인프라 구축

□ 신규분야 AI 활용 확대

- **(금융)** 금융서비스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대안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협력국의 금융 포용성 제고
 - 非금융 빅데이터(소득창출력, 소비성향 등)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 * 예) 캄보디아 대안신용평가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판매 사업('24-'26)
- **(산업)** AI와 로봇·센서·자동화 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을 결합한 피지컬 AI를 제조·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지원

과제 3 협력국 특화형 AI 사업 추진

□ 협력국 맞춤형 AI 확산

- **(현지화 모델)** 특정 글로벌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현지 언어·문화를 반영하여 협력국 문제해결에 특화된 AI 모델 구축
 - 협력국 대상 수요조사 및 KSP·EIPP 등을 통한 정책자문 결과를 검토하여 우선 추진국가를 선정 후 시범사업 실시
- *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 **(현지 실증) AX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여 현지 여건에 최적화된 AI 하드웨어 보급기반 마련 및 생태계 조성
- * 기기에 내장된 AI 반도체로 클라우드 연결 없이 AI 모델 구동이 가능한 디바이스
-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CTS, IBS 등)과 소규모 혁신랩을 통해 협력국 상황에 맞는 AX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확산

□ AI-Embedded 인프라 추진 (인프라 사업 + AI)

- **(인프라 + AI)** EDCF, 개발금융 등을 통해 협력국 대형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AIDC)를 접목한 K-AI 패키지 사업 추진
- * 예) EDCF발전소, 송·배전 + AI전력수급 예측, 송배전 손실 탐지 등 + AIDC
EDCF병원·의료 기자재 + AI진단 보조, 질병 조기에측 및 환자 모니터링 등 + AIDC
- 협력국에 K-AI 패키지 사업을 제안하여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국제사회에 확산
- **(전·후방 연계 강화)**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협력국 AI 생태계 조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AI ODA 패키지 사업 기획 지원
- KSP 등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정책·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 구축 후 운영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 예) 우수사례 공유(글로벌AI허브, 아태AI센터 활용) → 기술·제도 컨설팅(KSP, 무상)
→ 인프라 구축(EDCF) → 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무상사업)

과제 4 AI 활용 ODA 파트너십 강화

□ 글로벌 협력 강화

- **(이니셔티브 확보)** 정상외교, 국제회의 등을 통해 AI 규범 정립,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 등 국제 AI 의제 선도
 - 주요국·UN 국제기구·개발은행 등 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국내 조성('27년 계획),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 * 노동ILO, 이주IOM, ICTITU, 개발UNDP, 식량WFP, 보건WHO, 환경UNEP, 아동UNICEF, 난민UNHCR
- **(공동사업 발굴)** 글로벌 AI 허브를 기반으로 국제기구와 협력국의 AI 역량 강화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지원
 - 5개 다자개발은행의 AI 특화센터*를 선제적으로 유치하여('26.下~) 협력국의 AX 지원을 위한 시그니처 AI 프로젝트 발굴 추진
 - * WB('25.12월 既 개소) 외 ADB·IDB·EBRD·CABEI의 AI 국내사무소 설립 추진 중
→ 추후 각 MDB의 AI 특화센터는 글로벌 AI 허브 캠퍼스 內 입주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 형평성 개선 등 기구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AI 기반 해결방안 개발·실증
 - * 예) 「UNFCCC-KOICA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 포럼」에서 가뭄·홍수 등 기후 리스크를 줄이는 국내 AI 기반 농업 솔루션이 'AI for Climate Action Award 2025' 수상('25.10월)

□ 민관협력 확대

- **(기업 협력)**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CTS, IBS)을 통해 기업 아이디어와 AI 기술을 활용한 ODA 혁신사업 발굴·추진
 - 혁신기업 대상 CTS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고 실증에 성공한 기업이 현지에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지원
 - * CTS 예산(억원) : ('24) 84.6 ('25) 110.5 ('26) 117.5 ('27) 123.4(잠정)
- **(시민사회 협력)** 시민사회단체의 협력국 현장 이해도를 활용하여 AI ODA 사업의 포용성 및 현장 적합성 제고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 협의체 및 개별 NGO와 협력하여 협력국 현지 수요에 적합한 AI 활용 ODA 사업 발굴

과제 5 AI 기반 ODA 투명성 · 효율성 강화

□ ODA 투명성·접근성 강화

- ODA KOREA 홈페이지의 AI 검색기능 강화, 챗봇 도입 등을 통한 사업정보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ODA 사업 관련 산출물(사업계획서, 종료·사후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검색 체계 개편을 통해 ODA 데이터 활용성 및 정보공개 확대
- 챗봇 상담시 사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하더라도 의도·맥락을 정확히 파악, ODA 통계·사업정보 등 주요 데이터 제공

□ AI 기반 사업관리 제고

- **(인프라 정비)** AI 도입에 따른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ODA 시스템(ODA KOREA, ODA 통합정보포털)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 검토
- **(데이터 확보)** ODA 통합정보포털 내 사업 기본정보 외 ODA 사업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 및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前처리**

* 사업 단계별 산출물, 국가 개발지수 및 경제·사회 지표, 기상 데이터 등

** ▲데이터 형식 표준화 ▲결측이상 데이터 식별 및 보정 ▲중복 데이터 정제 ▲데이터 품질 검증

□ 사업단계별 AI 활용 확대

- **(기획)** ODA 사업의 유사도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심사시 중복 투자 방지 및 위치 정보 기반의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지원
 - * 사업의 개요, 텍스트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유사성 도출
- **(집행)** 기상 데이터, 뉴스·SNS, 현장 사진 등 다양한 데이터의 유기적 연결·분석을 통한 협력국 상황(위험 요인)의 모니터링·예측 지원
- **(평가)**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SDGs 등 거시 지표의 자동 집계·구조화를 통한 차기 시행계획 및 심사과정에 환류
 - * 유사 사업성과 및 평가 결과 비교·분석, 성공·실패 요인 도출 등
- **(기타)** 입력항목 추천, 유사 사업 검색 등 업무 효율성 제고

V. 이행방안

□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유·무상 사업 연계 및 패키지 사업 개발을 통해 AI 활용 ODA 대표사업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예) AI 융합 의료체계 구축사업 : 병원 설립 및 의료기기 도입 + AI 기반 진단,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 + 의료진의 AI 활용역량 강화 + 사후관리 컨설팅

- ODA 사업전략협의회(연 2~3회)를 통해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역량을 고려하여 수요기반 공동기획형 '제안형 ODA' 방식 활용

□ 맞춤형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 협력국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인프라 사업에 AI를 접목하거나 AI 기술 활용에 중점을 둔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 우수사례 창출

- 분야별로 AI 활용 솔루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가 검증된 성공모델은 타 분야 및 타 협력국으로 확산

- ODA 시행기관(KOICA, 수은 등)과 AI·ICT 전문기관(NIA, NIPA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활용 ODA 사업 기획 및 추진 역량 강화

* 국제개발협력사업 디지털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24.11월, 수은-NIPA), AI분야 국제개발협력 및 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26.5월 수은-NIA)

□ 민간 혁신역량 활용 확대

- 대기업(인프라, 현지 네트워크) - 중소기업·스타트업(기술, 혁신 솔루션) 컨소시엄의 사업참여를 활성화(심사시 가점 부여)하여 사업성과 제고

- 협력국이 당면한 문제 정의 및 사업발굴,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모델 개발(R&D), 실증, 확산 등 소 주기에 걸친 협력 강화

- CTS-TIPS 연계형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KOICA - 창업진흥원)*을 확대하여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ODA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기술성과 사업 역량이 검증된 기업(TIPS)을 대상으로 KOICA에서 개발협력 지원('24~)

VI. 향후 계획(안)

과 제	일 정	담당 부처
과제 1.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		
▪ AI 활용 기반 마련	'26~	외교·과기부 등
▪ AI 전문인력 및 기업 양성 지원	'27~	외교·과기부 등
과제 2. AI 융합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위기 대응 AI 솔루션 지원	'26~	외교·기후·행안· 농식품·과기부 등
▪ 중점협력 분야 AI 접목	'26~	외교·교육·기후·행안· 복지·국토·과기부 등
▪ 신규분야 AI 활용 확대	'27~	외교·재경·중기·과기부 등
과제 3. 협력국 특화형 AI 사업 추진		
▪ 협력국 맞춤형 AI 확산	'27~	외교·과기부
▪ AI-Embedded 인프라 추진	'27~	외교·재경·과기부
과제 4. AI 활용 ODA 파트너십 강화		
▪ 글로벌 협력 강화	'27~	외교·재경·과기부
▪ 민간협력 확대	'27~	외교·과기부 등
과제 5. AI 기반 ODA 투명성·효율성 강화		
▪ ODA 투명성·접근성 강화	'27~	국조실
▪ AI 기반 사업관리 제고	'27~	국조실
▪ 사업단계별 AI 활용 확대	'27~	국조실·외교부

1 변경·신설 사업 개요

-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수립(2월) 이후,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등 변경 발생시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승인한 분기별 변경 내역을 국개위 상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8항 ▲국개위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2 주요 변경 내용

- ‘26년 2분기 동안 외교부·재경부 등 4개 기관에서 총 22건* 변경

* ▲외교부(KOICA) 11건 ▲재경부 9건 ▲행안부 1건 ▲해수부 1건

- (사업 철회) ▲협력국의 약속불이행 및 의사결정 지연 ▲장기지연 사업 ▲협력국의 자원 조달 방침 변경에 따른 취소 요청 사업 등 11건
- (사업기간 변경) 협력국의 정세변화 등으로 인한 추가 요청사항 발생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별도 예산 증액 없이 1~2년 사업기간 연장(9건)
- (기타) 초청연수 대상국 추가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20% 초과 변경 (1건), 협력국의 요청에 따른 기타 사업 핵심 요소의 변경(1건) 등 발생

1 추진배경

- 외교부는 '18년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무상원조 사업 상시 모니터링 실시 중이며, '25년부터 민관합동 현지 ODA 점검 도입

2 '25년도 모니터링 결과

총 74개 재외공관이 84개국 340개 무상원조사업 대상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 사업 수는 전년대비 11% 증가
 ⇒ 정상이행 사업(79%)과 사업 지연, 후속 관찰 등 관리필요 사업(21%) 비중 및 관리 필요 유형은 예년과 유사

- **(재외공관 모니터링)** 관리 필요 사유로 기관 간 협의소통 체계 및 위험 관리, 성과관리 차원의 지속가능성 및 가시성 등의 보완 필요성 제기
 - **(협의소통 체계)** 수원국 분담의무 이행 지연, 관계기관 간 소통 부족
 - **(위험관리)** 기획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산 조정 등 운영 효율화 필요
 - **(지속가능성)** 사업 종료 이후 안정적 인력·예산 확보나 기자재 유지 보수 등 성과물 관리 및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 요구
 - **(가시성)** 타 공여기구 유사 사업 추진 및 개별 사업 특성으로 인해 우리측 기여 사항 식별성이 저조하거나, 홍보 강화 필요
- **(민관합동 모니터링)** 3개 지역(아프리카·아세안·중남미), 8개국, 24개 사업 대상 주관기관-재외공관-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실시('25.9~11월)
 - **(시사점)** ▲사업 기획·설계 단계부터 성과 관리, 위험 관리, 지속가능성 항목의 면밀한 검토, ▲전문적·체계적 모니터링 확대, ▲환류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 필요

3 향후 추진 계획

-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집행관리 점검 및 현장 지원 제공, ▲심사·평가 과정 환류 및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지속 추진
- **(‘26년 모니터링)** 64개 재외공관, 69개국, 342개 사업 대상 상시 점검 중
 - ※ 재외공관에 후보사업 공지(2월) → 재외공관 모니터링 희망사업 접수(2월) → 재외공관 대상 사업정보 제공(3월) → 재외공관 최종 목록 보고 및 모니터링 실시(4월~)
 - ‘26년 민관합동 현지 ODA 사업 이행 점검 실시(하반기)
 - ※ ODA 중점 협력국 중심으로 지역별(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등), 분야별(보건, 교육, 공공 행정, 농림수산 등) 현장 점검 예정.
- **(개정 국개법* 이행)** 재외공관 사업 현황 파악 신규 도입 및 재외공관 모니터링, ODA 현지협의체 등 기존 현장 매커니즘과 연계·결합 운영 추진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3조3항 신설(‘26.9.11 시행), 재외공관 사업현황 연1회 파악 의무
 - ※ **재외공관 사업 현황 파악 의무 이행 계획(안)**
 - 대상 : 당해연도 무·유상 ODA 신규·계속 전 사업
 - 방식 : 서면조사 방식 우선 검토(ODA 통합정보포털 활용)
 - 항목 : 사업개요, 주요 경과, 수행체계 정보, 이행상 리스크, 특기사항 등
 - 일정 : 재외공관, 매년 상반기 점검 실시·보고 / 외교부, 점검결과 하반기 국개위 보고